R&D팀

2022년 1월 MICE 산업 동향

2022. 2.

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목 차

1. 뉴노멀시대 전시산업 패러다임 변화 ····· 3

2. 해외시장 동향 ····· 11

3. 국내시장 동향 ····· 19

1. 뉴노멀시대 전시산업 패러다임 변화[1)]

가. 개요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전통적인 '대면 상호작용'이 핵심 가치로 주목받던 전시산업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음
- MICE 업계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며 다양한 미팅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화상회의 뿐 아니라 VR,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컨퍼런스 개최로 사람들 간 물리적 장애를 해결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음
- 본 고는 '서울 전시산업 지원방안 연구(2021)'에서 뉴노멀시대 전시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 핵심 내용을 발췌해 다루고자 함

1) 뉴노멀의 정의 및 개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론되기 시작한 '뉴노멀(New Normal)'은 경제, 사회 등의 위기를 겪은 이후 정착한 상태를 의미하며,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경제위기 이후 5~10년간의 세계 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을 의미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처음 등장한 뉴노멀은 2008년~2012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 등을 거치며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적 기준임
- 이처럼 뉴노멀은 경제 분야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으나, 다른 분야에서도 '이전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점차 아주 흔한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뉴노멀'은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삶을 정의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함

(가) 뉴노멀시대와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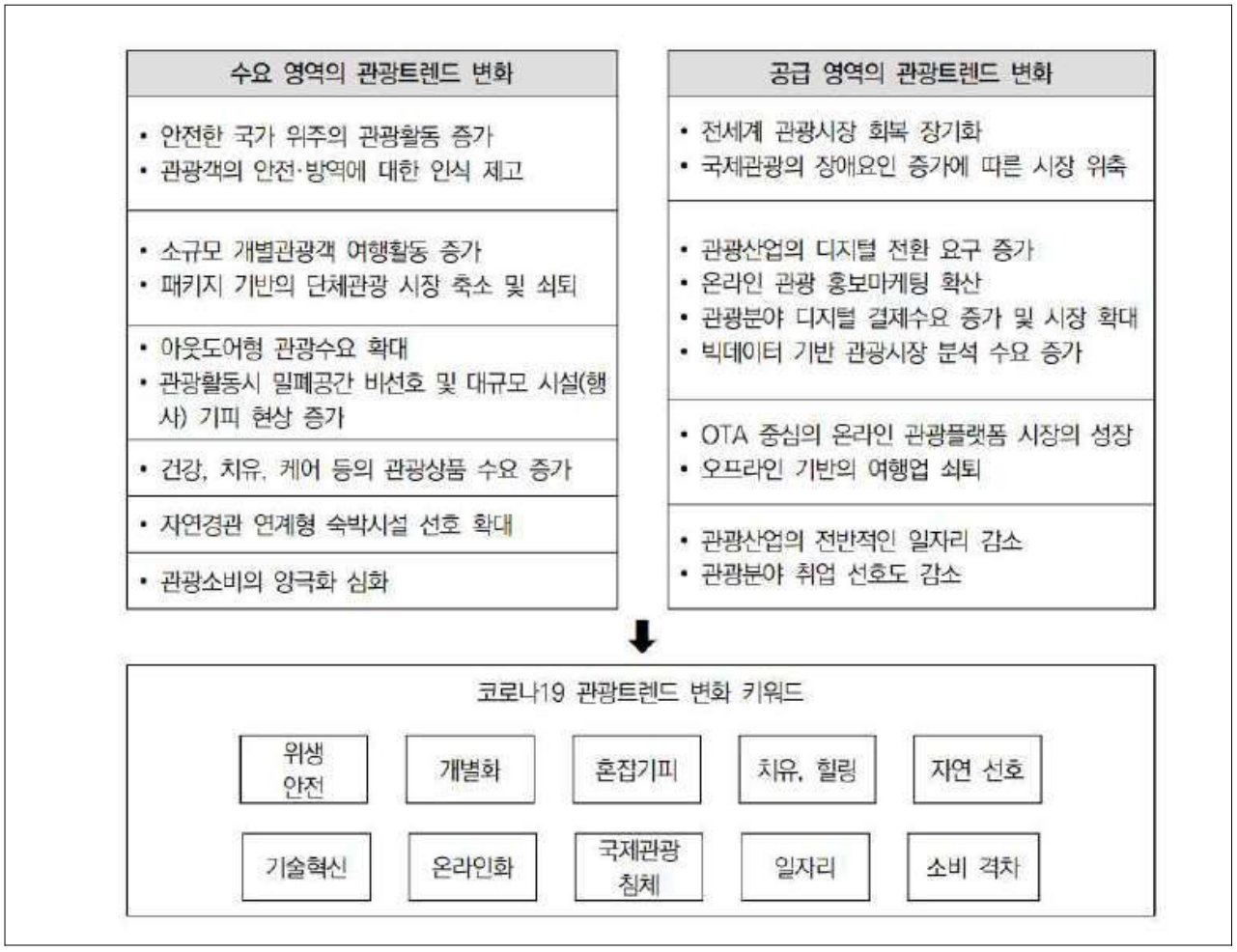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국제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 관광시장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글로벌 관광 산업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함

1) 본 고는 서울관광재단 R&D팀에서 추진한 '서울 전시산업 지원방안 연구 (2021)'의 일부를 발췌해 작성함

- 세계관광기구(UNWTO)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인 '20년 1월 국제관광객 수가 전년동기대비 43.8% 감소했고, '20년 4월에는 97% 감소한 것으로 발표함

- 사람들은 여행지와 숙박시설을 선택할 때 '청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관광지를 찾게 되면서, 당분간 해외여행과 장거리 여행 대신 국내여행과 근거리 여행이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관광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며 기존 관광 서비스에 빅데이터, AI, AR/VR, 블록체인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뉴노멀 시대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통해 스마트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그림 1] 코로나19 관광 트렌드 변화

(나) 뉴노멀시대와 전시산업

- 전 세계 국가들이 전시회를 취소 및 연기하고, 가상 전시회로 전환하거나,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함

- 2020년 하반기 기준, 개최예정인 전 세계 3,463건의 전시회 중에서 758건(22.8%)이 취소되었고, 2,583건(75.2%)이 연기되었으며, 68건(2%)만 가상 전시회로 전환하거나 행사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힘
  - 대륙별로는 유럽 전시회의 취소가 553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연기 건수도 1,447건(71.2%)임
  - 아시아의 경우 취소 122건, 연기 732건, 디지털 전환 및 규모 축소 25건임

<표 1>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전시회 개최 현황

구분	세계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호주
개최 예정	3,463	2,032	879	344	67	76	38
취소	785	553	122	98	2	3	7
연기	2,583	1,447	732	236	65	72	31
디지털 전환 및 규모 축소	68	32	25	10	-	1	-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전시저널

(다) 뉴노멀시대 전시회 사례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시공간의 제약이 많아진 오프라인 전시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 온라인 전시회를 비롯하여 뉴노멀시대 전시회를 다음의 유형으로 나눔
  - 온라인(디지털) 전시회: 2D 차원의 공간을 활용
  - 가상 전시회: AR/VR 등 고차원 기술을 활용해 3D 차원의 공간을 구현
  - 하이브리드 전시회: 오프라인 전시회와 온라인 전시회 병행

<표 2> 뉴노멀시대 전시회 종류 및 특징

구분	온라인 전시회			가상 전시회		하이브리드 전시회
종류	웹페이지	웨비나 컨퍼런스	디지털 쇼룸	전시회 부스형	메타버스형	온 · 오프라인
개념	인터넷을 매개로 다양한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개최되는 전시회			온라인 전시회 중에서도 3D, AR, VR 등의 기술을 사용해 전시회를 2 · 3차원으로 구현		온라인 전시회와 오프라인 전시회를 병행
특징	일반기업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	온라인 컨퍼런스, 웨비나 중심	전시참가업체에 쇼룸 형태의 브랜드 페이지 제공	전시회 부스 형태를 2, 3 차원으로 구현	아바타 간 상호작용 가능하며 3차원 구현	
사례	CES 2021 (미국), Hannover Messe 2021(독일)	Sibos 2020 (영국)	Maison& Object 2020 (프랑스)	The 129th Canton Fair(중국), Licensing Week 2020(영국)	인디크래프트 2021(한국), SXSW Online 2021 (미국)	MWC 2021(스페인), SIAL China(중국), Viva Technology (프랑스)
한계점	· 오프라인 대면 행사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며 온라인 행사만으로 대체 불가 · 참가업체 수 감소 및 전체 수익성 감소 · 기술 구현과 투자 비용 대비 효과 및 수익성에 대한 의문점 · ICT 기술 이해 부족 및 데이터 관리 · 활용 미숙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 초래 · 참가자의 온라인 · 인터넷 환경에 따라 원활한 접속 및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 전시참가업체의 온라인 전시회 참가 효과에 대한 의문점					
종합	· 전시회 본래의 기능과 특성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고 효과적인 기술 활용 및 적용이 필요함 · ICT 전문가 및 대기업 노하우 전수자들에게 전시산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산업에 대한 이해도 부여가 필요함 · 전시산업 이해관계자 대상 ICT 전문가 교육 및 대기업의 노하우 전수 교육 및 육성이 필요함 · 수익성 구조에 대한 연구 필요 · 온라인 이벤트 개최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 및 새로운 법 · 제도 · 규정이 필요함 · 온라인 전시 참가업체 성과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필요					

나. 뉴노멀시대 전시산업 패러다임 변화

1) 뉴노멀시대 전시회의 변화 및 특징

-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전시회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됨
- 온라인 전시회는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공간 즉, 가공된 환경에서의 전시회로 참관객에게 시각, 촉각, 청각을 이용한 심리적인 체험을 제공함
- 가상 이미지, 동영상,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상호작용적 정보제공, 전시환경 구현과 유지의 측면이 가능하여 특정 문화나 사상에 대한 체험과 직접 참여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용이함
- 전통적인 의미의 전시회가 일시적이며(Temporary), 시간에 민감한 시장(Time-Sensitive Marketplace)의 성격을 가진다면, 온라인 전시회는 지속적이며, 시간의 제약이 극복 가능하다는 특성을 보임
- 온라인으로 한번 구축된 전시회 플랫폼은 서버와 호스팅이 유지되는 한 행사 기간 이외에도 관람이 가능한 지속가능성을 가짐

2) 뉴노멀시대 전시회의 양상

- 온라인 전시회는 온라인 전시회로 변화함과 동시에 오프라인의 주요 특성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그림2)

[그림 2] 뉴노멀 전시회 패러다임 변화 키워드

- (무역거래) 고객은 선택한 매체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방문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함
- (사업의 교환) 참관객은 참가 기업으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참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매력을 갖춘 고객이 직접 찾아오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폭넓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뉴노멀시대 '변화'된 전시회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3> 뉴노멀 전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변화된 특성

BEFORE	AFTER	주요 내용
한정된 장소 · 시간	물리적 · 시간적 제한 없음	-[참관객 무한 수용 가능] 온라인 전시회는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장기 개최가 가능함 -[서비스 연계 유용성] 오프라인 전시회보다 쉽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 온라인 포럼 등과 연계가 가능함 -[혁신적인 플랫폼 구축 기회] 그동안 전시회 분야의 특성상 혁신적인 모델이나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나, 온라인 전시회 도입으로 VR, 3D 등의 가상 구현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며 혁신적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회] 주최자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참가업체와 참관객의 상호작용을 돕고, 향후 구매로 연결되는 상담회 또는 e-커머스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기회 제공이 가능함
대면 상호작용	비대면 상호작용	-[정보 접근성 증대] 제품에 대한 획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정보 간 이동에 있어서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비선형적 이동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자유도가 높음
비용 발생	비용 절감	-[참가업체와 참관객의 비용 절감] 전시회 참가 업체에게 가장 비용 효과적인(Cost-Effective) 촉진 수단으로 참가 기업들은 오프라인 전시회보다 낮은 비용으로 참가해 홍보가 가능하며, 참관객은 이동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해외 연사 초청 용이] 컨벤션을 함께 개최하는 경우, 해외 연사의 숙박비와 항공비 지원 비용에 부담이 있었으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데이터 축적의 어려움	데이터 계량화 및 분석 가능	-[참가자 데이터 계량화] 전시회 방문객과 부스 방문객에 대한 데이터를 계량화하여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가능함 -[참가 성과의 객관적 계량화 가능) 참가 성과에 대한 계량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회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용이함

3) 전시산업 이해관계자 관점의 변화

▮ 전시주최자: 참가기업·주최자·바이어 간 상시 소통과 참가자 관련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지만, IT 개발 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해짐

● 온라인 전시회의 지속성은 단발적인 비즈니스와 네트워크가 아닌 참가 기업, 주최자, 바이어 간 상시 소통이 가능해졌지만, 유지 및 보수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주최 측의 비용 부담이 발생함

-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전시회의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 행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름
-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온라인 전시관 구축을 위해 IT 개발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함
- 오프라인에서 얻기 어려웠던 참가자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음
  - 전시회 참관 소요 시간, 부스 방문 횟수, 참가업체와 바이어 간 매칭 횟수 등
- 쇼핑라이브와 같은 e-커머스 서비스 연계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해외 연사 초청 비용(항공 및 숙박비)등 지원 비용이 절감하기 때문에, 저명한 연사 섭외가 용이함

▌참가업체: 온라인을 통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잠재고객과 접촉이 용이해짐

- 참가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노출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시공간 제약이 낮아짐에 따라 하나의 전시회 참여로 전 세계의 잠재고객과 접촉할 수 있음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부스 디자인과 기술을 접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 비해 비용 절감 가능함
- 참가 후 참관객의 계량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향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참관객: 시간 제약없이 전시회 참가가 가능하며 전시 상품에 대한 정보 습득 용이

- 참관객은 전시회 개최 기간 중 언제든지 쉽게 전시회 참가 가능
- 3D 기법, 각종 프레젠테이션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오프라인 전시회 보다 상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며, 전시회 관람 중 관심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추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
- 상품에 대해 최초로 접한 후 최종 구매까지 오프라인 전시회보다 간편하고 빠름
- 전시회 참가 경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며, 오프라인 전시회 현장 방문을 통한 피로감을 줄일 수 있음

▌ 전시시설업: 전시시설 확충보다 다기능과 디지털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커짐

- 코로나19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형 전시장이 추세였으나, 온라인 전시회와 하이브리드 전시회가 확산되며 대형화 위주의 전시시설 확충보다 다기능화가 중요시 될 것으로 전망됨

- 기존의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장과 회의 규모별 컨퍼런스룸을 갖추는 것에서 벗어나 화상회의시설, 쇼핑라이브 스튜디오 등 디지털 환경을 구축한 시설의 필요성이 커짐

- 전시컨벤션센터는 많은 사람을 한곳에 모으는 집적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관광, 숙박, 식음, 주차, 교통 시설 등 주변 인프라가 함께 형성되었다면, 더이상은 주변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을 것임

- 접근성을 고려한 수도권 위주의 전시컨벤션센터가 전시회 유치에 유리했다면, 향후에는 스튜디오 시설과 같은 최첨단 디지털 환경을 갖춘 지역 컨벤션센터로 전시회가 분산될 것으로 보임

▌ 전시디자인설치업: 오프라인 전시회 규모 축소로 디자인설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

- 하이브리드 형태로 오프라인 전시회가 축소되거나 오프라인 전시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전시디자인설치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임

- 스튜디오, 방송 장비와 같은 온라인 전시회 설치를 위한 장치 등 준비가 필요함

▌ 전시서비스업: 서비스 다각화 필요

- 기존 전시서비스업은 오프라인 전시회 행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확장이 필요함

2. 해외시장 동향

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 싱가포르: 1,000명 인원 규모의 비즈니스 행사 개최 승인 예정

- 싱가포르에서 51명~1,000명 사이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날 것으로 보임
  -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과 같은 행사의 평면도와 일정 등과 같은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내용을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50인 이하의 행사는 당국에 별도의 통보 없이 개최할 수 있음
- 행사 주최 측은 싱가포르 당국에 행사에 대한 사항을 알리면 해당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나, 마스크를 벗고 식음료 취식은 금지되며, 지정된 좌석에 앉거나 서 있어야 함
  - 참가자들은 최소 1m의 거리를 둬야 하고, 한 구역 당 100명의 인원 제한과 구역 간에 2m의 거리를 둬야 함

▮ 싱가포르: 2021년 약 200여개 이상 행사 개최로 비즈니스 이벤트 여행지 지위 유지

- 싱가포르는 2021년 약 200개 이상의 비즈니스 행사를 개최했으며, 약 5만 명의 국내외 참가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블룸버스 신경세포 포럼, 산업혁신 아시아태평양 2021, 밀켄 연구소 아시아 정상회의, 제50회 세인트갤런 심포지엄 등이 개최됨
  - 2021년 싱가포르 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 STB)은 26개의 국제적 규모의 MICE 행사를 확보했으며, 그중 일부는 다년간 개최지로 선정됨
- 2022년 주목할만한 행사로 싱가포르 에어쇼, 2022 세계보건안보회의, 디자인 페어 아시아, 세계도시정상회의, 제60회 국제청년변호사 콩그레스, 씨푸드엑스포 등이 있음
- 싱가포르 관광청(STB)은 싱가포르 컨벤션 및 전시조직 및 공급업체 협회(Singapore Association of Convention & Exhibition Organisers & Suppliers, SACEOS)와 협력을 통해 산업 안전 인증 제도 프로그램(SG SafeEvent Standards Certification)을 운영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 고려하여, MICE 행사 개최 건수 증가 전망

- 인도네시아 MICE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유지한다면, 2022년에는 MICE 행사 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인도네시아는 2021년 예정되었던 64개의 전시회 중 42개가 10월 초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가까스로 성사되었음
- 2022년 인도네시아의 전국 대도시와 여행지에서는 G20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100여 개의 컨퍼런스와 전시회가 열릴 예정임
- 인도네시아 전시기업협회(Indonesian Exhibition Companies Association, IECA) 회장인 호세아 안드레아스 런캣 (Hosea Andreas Runkat)은 정부가 올해 다양한 MICE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2022년 중반에는 2019년 수준에 가까운 수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또한, 인도네시아 콩그래스컨벤션협회(Indonesia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INCCA)회장인 이크발 압둘라(Iqbal Abdullah)는 2022년~2023년 더 많은 대면 행사를 개최해 2024년 전까지 MICE 산업이 다시 반등할 기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인도네시아의 MICE 관계자들은 6월에 예정되어있는 '포뮬러E 전기모터스포츠 챔피언십'과 11월 '국제 퍼블리셔 콩그레스' 등 자카르타의 국제 행사의 정상적인 개최가 비즈니스 행사를 복구하는데 촉매제가 될 것으로 봄

▌ 중국: 베이징 노스스타 컨벤션 전시 투자사, 국제 MICE 컨설팅 회사 '게이닝 엣지'와 파트너십 체결

- 중국의 복합 프로젝트 중국 네셔널 컨벤션센터(China National Convention Centre, CNCC-II)의 투자자이자 개발사인 베이징 노스스타 컨벤션 전시 투자사(Beijing North Star Convention and Exhibition Investment)는 국제적 MICE 행사 유치 및 개최를 위해 국제 컨설팅 회사인 게이닝엣지(GainingEdge)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함

- 따라서, 게이닝엣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베이징의 컨벤션센터 사전 운영 및 마케팅을 담당하게 되며, 행사장 관리와 국제 MICE 행사 마케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네셔널 컨벤션센터의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범위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중국 네셔널 컨벤션센터는 베이징 올림픽 스포츠센터 인근에 있으며,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 메인 미디어센터로 사용될 예정으로 올림픽이 끝난 후 2024년 초부터는 국제 컨벤션센터로 오픈할 예정임

  - 중국 네셔널 컨벤션센터의 연 면적은 780,000㎡이며, 메인 행사장 파트는 약 420,000㎡로 프랑스 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르잠 파르(Christian de Portzamparc)가 설계했으며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회, 컨퍼런스, 포럼, 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

GainingEdge

国家会议中心
CHINA NATIONAL CONVENTION CENTER

[그림 3] (좌) 중국 네셔널 컨벤션센터 전경, (우) 게이닝 엣지 로고

나. 미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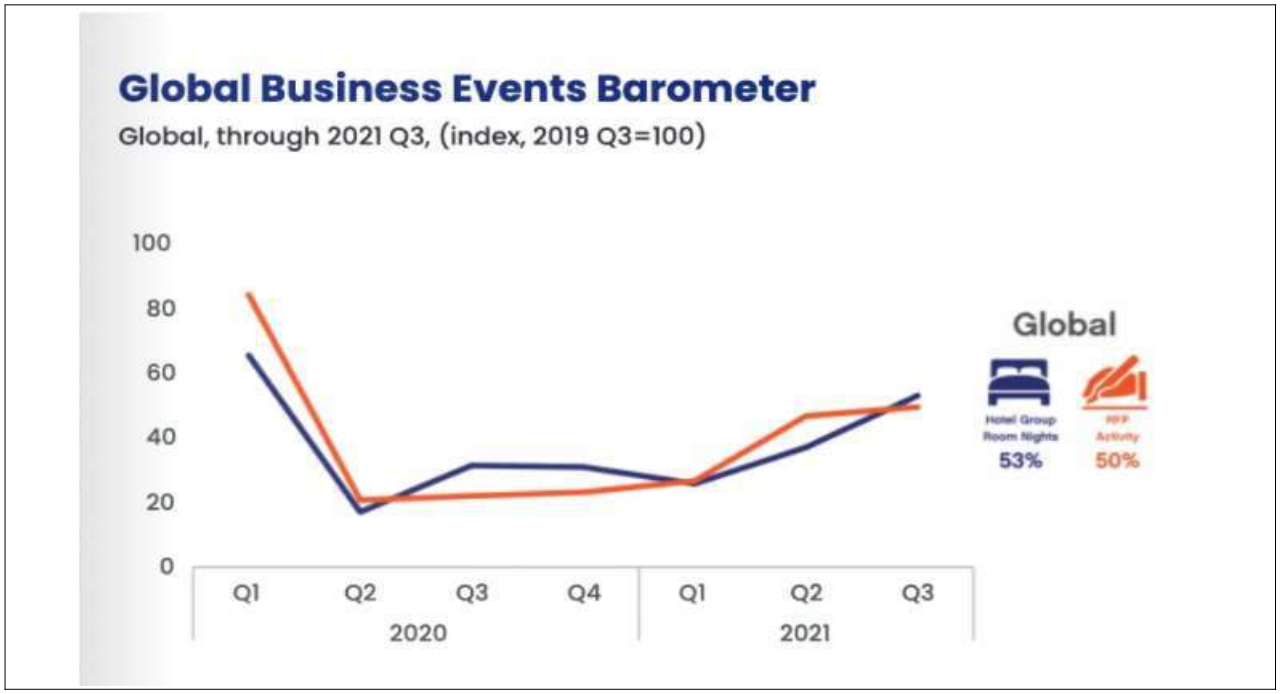
▌ 미주: 사우스플로리다, 2025년 그레이터 포트 로더데일/브라우어드 카운티 컨벤션 확장 계획

- 사우스플로리다의 그레이터 포트 로더데일/브라우어드 카운티 컨벤션센터(Greater Fort Lauderdale/Broward County Convention Center, GFLCC)는 2025년 말까지 기존 면적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로 확장할 계획임
  - 컨벤션센터 확장을 통해 약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 기존 60만 평방피트의 시설을 35만 평방피트의 전시장을 포함하여 80만 평방피트로 20개월에 걸쳐 확장할 예정으로, 2021년 10월 재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시설 확장 뿐 아니라 회의 및 컨벤션을 위한 최첨단 어메니티를 갖출 예정임
- 로더데일 관광청 관계자에 따르면, 확장된 컨벤션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와 무역 박람회에 대한 일정이 잡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이며 다양한 관광과 회의 장소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핵심 키가 될 것이라 밝힘

[그림 4] 그레이터 포트 로더데일/브라우어드 카운티 컨벤션센터 전경

▌ 미주: 이벤트산업위원회, 글로벌 비즈니스 이벤트 바로미터 결과, 팬데믹 이전 절반 회복 추세

- 이벤트산업위원회(Event Industry Council, EIC)에서 출시한 글로벌비즈니스 이벤트 바로미터(Global Business Events Barometer)는 2021년 전반적인 비즈니스 회의 및 이벤트 행사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절반 정도 회복되었다고 밝힘
  - 글로벌비즈니스 이벤트 바로미터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가 고안한 척도로 2019년의 팬데믹 이전과 시장 내 변화를 모니터링함
- 바로미터에 따르면, 2021년 3분기는 2020년 동기대비 호텔 단체 객실 숙박이 약 68.8% 증가했으며 국내 출장 기업은 57%로 2020년 대비 약 2배 증가함
- 회의와 행사는 2019년 3분기의 50%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소규모 이벤트는 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이벤트산업위원회 CEO인 에이미 캘버트(Amy Calvert)는 바로미터의 결과를 통해 가상 및 하이브리드 행사 뿐 아니라 대면 행사의 복귀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힘



[그림 5] 글로벌 비즈니스 이벤트 바로미터

다. 구미주 지역

▮ 영국: 판버러 국제 전시회&컨퍼런스센터, 2022년 MICE 업계 트렌드 예측 결과 공개

- 판버러국제 전시회&컨퍼런스 센터(Farnborough International Exhibition & Conference Centre)는 2022년 MICE 업계의 트랜드와 산업에 대한 예측 결과를 공개함

- 2021년 여름 MICE 산업이 재개된 이후, 업계 전반에 걸쳐 대면 행사 참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행사 참가업체의 약 70%가 2022년 행사에 재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임

- 대면 행사에 대한 수요를 통해 국제 시장과 참가자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다수의 새로운 컨퍼런스, 전시, 포럼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원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포괄적인 주제보다는 사회, 경제, 환경 이슈의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행사가 각광 받을 것으로 예측함

- 2019년~2020년 행사 신규 참가자(54%)보다 2021년 신규 참가자의 비율이 79%로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 했을때 다양한 이벤트로 참가자와 행사 섹터 간의 긴밀한 연결로 신규 참가자의 로열티를 높여야 함

- 앞으로 국제여행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용품 사용 등이 보편적인 상황이 된다면, 참가자들의 브랜드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경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행사 기획자들은 "WOW 팩터(WOW factor)"라 불리는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전달하고, 참가자들의 몰입감 높은 경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림 6] 판버러 국제 전시회&컨퍼런스 센터

▌ 체코: 프라하, 2022년 7월 대형 의학 총회인 유럽 알러지 임상면역학 총회 개최장소로 선정

- 프라하는 2022년 7월 1일~3일까지 하이브리드로 개최될 유럽 알러지 임상 면역학 총회(European Academy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EAACI) Congress)의 개최장소로 선정됨
  - 유럽 알러지 임상 면역학 총회는 전세계 주요 오피니언 리더 및 의료 전문가와 과학자 등 약 8,000여 명이 매년 참석하는 대형 의학 총회임
  - 2021년 총회는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하이브리드로 개최된 바 있음
- 프라하 컨벤션뷰로(Prague Convention Bureau)는 체코 알러지 임상면역학회(Czech Society of Allergology and Clinical Immunology)와 협력하여 3년여간의 노력 끝에 유치권을 확보함
- 올해에도 행사기간 동안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 주요 연사들이 진행하는 200여 건의 프레젠테이션과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음

[그림 7] 2022 EAACI 하이브리드 총회 포스터

라. 오세아니아 지역

▌ 뉴질랜드: 오클랜드, 2024년 고고학분야 대형 컨퍼런스 개최지 선정

- 오클랜드는 2024년 대형 컨퍼런스인 '고고학의 컴퓨터 응용과 정략적 방법(Computer Applications and Quantitative Methods in Archaeology Conference, CAA)'의 개최지로 선정됨

- 해당 컨퍼런스는 뉴질랜드에서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35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며, 고고학, 역사, 문화유산 분야의 최신 및 혁신적인 컴퓨터 기술을 선보이는 연례행사임

- 오클랜드 컨벤션뷰로(Auckland Convention Bureau, ACB)는 오클랜드 대학교와 함께 2024년 CAA 컨퍼런스 유치를 위해 협력했으며, 국경이 다시 열리기 전에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경제적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주요 학술대회를 오클랜드에 유치함으로써 오클랜드 MICE 부문의 성장을 위한 모맨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임

▌ 서호주: 2024년 암석예술 연구 분야 대형 국제총회 개최지 선정

- 서호주는 2024년 국제암석예술기구 총회(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Rock Art Organisations, IFRAO)와 제4차 호주암석예술연구협회 총회(4th Australian Rock Art Research Association Congress, AURA)의 개최지로 선정됨

- 2024년 후반에 개최될 예정인 IFRAO와 AURA 총회는 서호주에서 열리는 암석예술 연구 분야의 전문가 1,000여 명이 서호주대학교에 방문해 5일간 총회를 이어갈 예정임

- 비즈니스 이벤트 퍼스(Business Events Perth)의 CEO인 개러스 마틴(Gareth Martin)은 국제적 성격의 암석예술 총회를 통해 약 480만 호두 달러 이상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3. 국내시장 동향

▌ 전국: 서울, 경기도, 대전 등 전시장 및 컨벤션센터 확충 사업 활기

- 전국적으로 전시장 인프라 확충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의 제3 전시장 건립과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역 북쪽에 제2의 코엑스라 불리는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통한 전시업계 활성화가 주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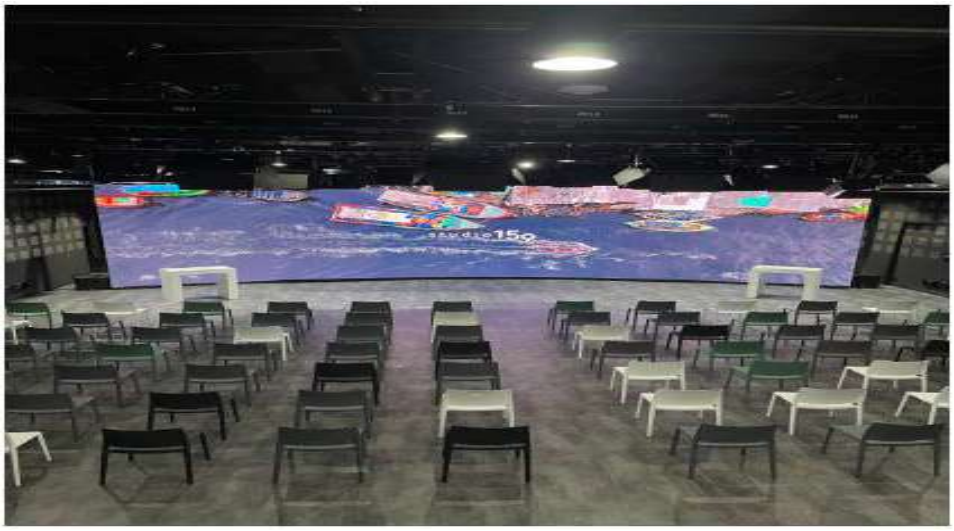
- 또한, 4월에는 대전컨벤션센터(DCC)의 제2 전시장이 문을 열고,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제2 전시장 건설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음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지자체 전시장 인프라 구축 사업 외에도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전시장 건설 사업도 늘고 있는 것을 통해, 전시산업이 코로나19 이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대전시의 경우 국제회의 복합지구 400만㎡ 규모의 회의시설과 숙박, 쇼핑, 교통 편의시설이 집적된 구역에 대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사업 지정을 통해 관광특구에 준하는 혜택과 메타버스 기반의 최첨단 디지털 전시장 구축, 체감형 가상공간과 템플릿화 된 부스를 통한 가상 전시회 플랫폼 구축 등 본격적으로 MICE 산업의 요충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경기도 성남시와 수원시는 지자체 자체 컨벤션센터 설립을 위해 도입 시설 및 운영 특화 방향, 마이스 산업 전담기구 운영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그림 8] (좌) 대전컨벤션센터, (우) 잠실 스포츠 ·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 조감도

▌ 서울: 코엑스, 국내 MICE 업계 최초 하이브리드 전문 스튜디오 개관

- 코엑스가 국내 MICE업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행사 전문 공간인 '스튜디오 159'를 완공해 개관식을 개최함
  - 스튜디오 159는 코엑스 2층에 있으며, 294m^2 규모에 500인치 초고해상도 발광 다이오드(LED) 커브 스크린, 방송 스튜디오급 조명 설비와 장비 등을 갖춤
- 코엑스는 이를 이용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열릴 웨비나, 온라인 컨퍼런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연계 하이브리드 행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략임
  - 코엑스는 지난 2년간 하이브리드 행사 500여 건을 개최했으며, 최근 수요 조사에 따르면, 올해 약 400여 회의 하이브리드 행사가 열릴 전망임
- 코엑스 스튜디오 159는 1월 6일, CES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를 연결해 참가 기업과 무역협회 회장단이 안정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테스트 과정을 마침
  - 또한, 영화·드라마 제작 발표회, 광고·뮤직비디오 촬영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 제작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음
- 코엑스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전문 스튜디오 개관을 계기로 MICE테크(MICE+테크놀로지)를 혁신하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MICE 트렌드에 발맞춰 K-MICE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힘



[그림 9] 코엑스 하이브리드 스튜디오

▮ 경기도: 경기 12개 시·군으루 구성된 '경기 MICE원팀' 통해 MICE산업 육성 사업 추진방향 공개

- 경기도가 MICE 산업의 코로나19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 중소형 행사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12개 시·군으로 구성된 '경기 MICE 원팀'을 구성함
  - 경기 MICE 원팀은 기존 고양시(킨텍스)와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12개 시로 해양·레저·생태계 김포, 안산, 시흥, 역사·관광·학회·협회 수원, 용인, 문화콘텐츠 부천, 게임·콘텐츠·IT 성남, 휴양형·힐링형 웰니스 양평, 가평, 남양주, 광주, 대형 마이스 고양 등 6개 권역으로 구성함
-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행사,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2022년 MICE산업 육성사업 추진방향'을 공개함
  - 경기도 MICE산업 육성사업은 고부가 MICE 유치 지원확대, 지원특화컨벤션 육성,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으로 나누어 추진함
- 세부 육성사업 지원책으로 '그린 MICE' 행사에 대한 가점 신설, 도내 기관에 가점 2배 강화, 도내 중대형 MICE 행사 개최 시 지방 참가자들을 위한 주요 역사이 '경기MICE 웰컴 셔틀버스'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국내외 유력 MICE 행사 약 40건 개최를 지원할 방침임
- 또한, 중소형 행사 육성을 위해 '스몰미팅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행해 행사장 임차료, 관광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임
- 지역특화컨벤션 육성을 위해 '경기도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사업' 대상을 지난해 3개에서 4개로 늘렸고, 기준 참가자 수도 2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높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 육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 MICE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이색 회의명소인 유니크베뉴 17개소 지원 강화, 관광·MICE 얼라이언스를 확대할 예정임

▌ 인천: 인천관광공사, 전시회 성장 단계별(Lifecycle) 지원 프로그램 도입 계획 발표

- 인천관광공사는 공사가 운영 중인 인천 대표 전시컨벤션센터인 송도컨벤시아 전시회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전시회 성장단계별(Lifecycle)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힘
  - 이번 지원프로그램은 전시산업 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전시회 인큐베이팅을 통한 브랜드 전시 성장기반 마련, 미래 신사업 전략 전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추진함
- 인천관광공사의 지원 프로그램은 신규전시회·유망전시회·우수전시회에 대한 3단계 성장단계별 지원이 있음
  - 신규전시회는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 이력이 없는 산업재, 소비재, 정부 전시회로 2년 동안 임대료 감면(30%)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행정지원도 병행함
  - 유망전시회는 신규전시회 개최 후 성과평가를 통해 2년 동안 추가 임대료 감면(30%)을 지원하며, 공사의 지원 아래 우수전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우수전시회는 2010년부터 지속되는 대표 지원사업으로 개최면적에 따라 전시장 임차료, 국내·외 홍보비, 국내·외 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등 최대 6000만 원의 지원금을 5년간 제공할 계획임

[그림 10] 송도 컨벤시아 전경

▌ 부산: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 2022년 대형 국제회의 개최 준비 돌입 예정

-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2022년 국제천문연맹(IAU)총회, 2022년 국제물류협회(FIATA) 세계총회 2022 아시아변리사회(APAA)이사회, 2022 국제내연기관협회(CIMAC) 세계총회 등 코로나 19로 미뤄졌던 대형 국제회의의 부산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라 밝힘
  - 국제천문연맹(IAU)총회는 약 100개국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행사로 2021년 8월 개최예정이었으나, 연기되어 올해 8월 2일~11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임
  - 올해 9월 13일~19일까지 개최되는 국제물류협회(FIATA)는 현재 108개국, 4만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총회를 열고 있으며, 회원국을 포함해 120개국 이상에서 3,000여 명 이상의 관료, 물류 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함
- 올해 부산에서는 총 7건의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형 국제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부산관광공사는 이에 대해 부산으로 유치된 대형 국제회의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 밝힘

▌ 울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개관 첫해 가동률 35% 기록

- 2021년 4월 개관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유에코(UECO)는 국제회의와 대형 연회가 가능한 컨벤션홀이 있다는 장점을 통해 개관 첫해 가동률 35%를 기록함
  - 가동률 35%는 대구 엑스코(27%), 부산 벡스코(26%),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20%)보다 높은 가동률임
- 울산 유에코는 산업도시 울산의 장점을 살려 국제수소에너지 전시회·포럼을 비롯한 안전산업 위크, 에코 스마트항만 대제전 등 산업과 관련된 전시, 포럼 등을 대거 유치하고 있음
- 2025년 하반기 북구 강동해변에 1000실 규모의 롯데 리조트가 오픈하면 울산도 부산과 경주처럼 체류형 관광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조선도시 동구에는 고급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춘 해양 중심 체류형 관광지가 조성될 예정임